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이용한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

김 영 희¹⁾ · 김 신 정²⁾

1)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Abstract =

Child-rearing Attitudes of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Kim, Young Hee¹⁾ · Kim, Shin Jeong²⁾

1)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ttitude of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to child rearing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parent education program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84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and the measurement tool was the Korean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1 kindergarten and 1 child care center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Results:** 1) Child-rearing attitudes of the fathers was above average at 2.80(±0.19).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according to father's occupation ($F=3.14$, $p=0.03$) and child characteristics ($F=4.87$, $p=0.01$). 3)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hild rearing attitudes of the fathers and their age ($\tau=-0.16$, $p=0.04$), and child characteristics ($\tau=0.21$, $p=0.02$).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ttitudes of fathers to child rearing are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ic parenting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Preschool children, Child rearing, Attitude, Father

주요어 :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 양육태도

* 본 연구는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 김영희(E-mail: yhkim2024@gmail.com)

투고일: 2007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08년 1월 26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oung He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707 Seokjang-dong, Gyeongju, Gyeongsangbuk-do 780-714, Korea

Tel: 82-54-770-2623 Fax: 82-54-770-2616 E-mail: yhkim2024@gmail.com

서론

연구의 필요성

세상을 사는 사람 모두는 부모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가 되므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자연스러운 단계일 뿐 아니라 도구적인 일이기도 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는 등의 일차적 기능을 통해 다음 세대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신체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을 준비해 주는 영구적인 과업을 위임받고 있다(Bornstein, 2005). 그러므로 이를 수행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일생동안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아동기 초기동안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격과 성격의 핵심적 부분이 형성된다(Park, 1993). 특히 정규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취학 전 유치원 시기인 4세~6세까지의 학령전기 동안의 아동 경험은 이후의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흥미본위로 행동하며 주위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발달되어 질문이 많아지고 사회성이 발달하여 놀이집단을 형성할 뿐 아니라 성적 호기심이 많아지고 성역할이나 성 유형이 뚜렷해지며 부모의 행동을 동일시하여 초자아와 양심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Yang et al., 2005), 부모 모두의 충분한 관심과 아동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균형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그러나 점차 다문화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 넘쳐나는 정보로 인하여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므로 부모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갖고 부모가 되는 것 또한 당연시 되고 미화되어왔기 때문에 부모기에 대해 특별히 준비하거나 무언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Sang, 1993).

최근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등 급격한 가족의 변화 속에서 근대적 부모상이었던 남성 생계부양자와 돌보는 자로서 여성이라는 부모역할은 그 정당성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단순화, 기능축소로 일차적인 자녀양육의 책임이 가정에서 사회기관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 과거에는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과 역할을 어머니에게 부과하였던 관점으로 부터(Yun, 1999), 아버지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주변적 인물이라는 인식에서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아버지 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다움이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

회적 규정은 어머니에 대한 규정보다 모호하고 추상적이며(Ham, 1997),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아동 학대, 유기 및 방임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im, K. S., 2002).

또한 최근에 와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돌봄, 보호와 애정적 결속만이 아닌 자녀의 발달과 교육적 향상의 토대를 이루기 위한 교사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Jeon & Kim, 2005; Kim, S., 2002). 특히 Strom과 Johnson(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령전기 아동의 인지·언어발달 및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들은 일생동안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신이 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은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연구자는 자녀양육의 공동책임자인 아버지로서의 개인적 정체성 확립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남성적 권위의 약화 측면이 아닌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아버지, 어머니와 아동과의 관계, 가족주기 혹은 가족발달에 따른 가족중심 간호측면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 관련 교육 및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발달연령상 학령전기는 언어, 사회성, 창조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적발달에 중요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자극을 주는 등 가르치는 측면을 보여주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되어, 이 시기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Oh & Chu, 2004; Yang et al., 2005).

아동 양육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주로 아동학,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어머니를 주 양육자로 연구하였으며 일부이지만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놀이성, 유아의 언어 및 사회적 능력, 아동의 창의적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Schaefer 모델, Baumrind 유형, 또는 자가 개발한 양육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라는 두 개의 차원론적 접근과 권위형, 엄격자애형, 그리고 허용형이라는 유형론적 접근으로 양육태도와 아동 발달과의 상관성 연구가 있었다(Ahn, 1999; Jang & Cho, 2006; Kim, K. S., 2002; Lee, 2004). 한편,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는 개념적 틀에 있어서 주로 Schaefer의 모델을 근거로 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정·적대의 축과 자율·통제를 또 다른 축으로 하는 네 가지 차원에서의 양육 유형에 대한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이며(Bang, 2004; Hong, Ahn, & Kim, 2004; Lee, Lee, Kim, Kim, & Park, 2004; Lee, 2002)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가치, 기준,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아버지상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많이 이용되어 결과가 알려진 개념적 모델을 이용하기 보다는 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사로서의 역할에 비추어지는 양육에 대한 아버지들의 주관적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으나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그들의 요구에 기초한 양육관련 지식 및 기술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유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이론적 자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 아동의 특성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편의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 한 곳과 어린이집 한 곳 등 두 곳에서 학령전기 아동을 둔 아버지 13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절차로는 해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유치원장 및 관련 교사들의 구두허락 하에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한 안내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맡겼으며 교사들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학부모에게 직접 안내서와 동의서를 전달하였다. 모든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기록되며 연구결과 또

한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신체적·심리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렸다.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84부의 질문지가 최종으로 선택되었으며 질문지 회수율은 64.6%이었다.

본 연구의 표본수와 관련하여, 적절한 표본의 수는 ANOVA 분석 시 Cronbach's $\alpha=0.05$, power=0.70, eta-squared=0.1이었을 때 3 범주의 경우 한 범주당 24표본(3범주×24명=72명), 4 범주의 경우 21표본(4범주×21명=84명), 즉 72명~84명이 필요하다(Pallant, 2005; Polit & Hungler, 1999). 조사연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집단에 10~30 개의 표본수가 필요한 실험연구보다 많은 표본이 필요하나(Lee, Yang, Gu, & Eun, 1997) 회수된 자료 중 분석이 가능한 질문지가 예상보다 적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의 양육태도 도구는 Chung(1987)이 Strom과 Johnson(1974)이 개발한 PAAT(Parent As A Teacher) 검사 도구를 기초로 하여 2차에 걸쳐 수정·보완·확충 과정을 통해 부모 개개인의 교사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도구(Korean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KPAAT Inventory)이다. KPAAT 검사도구는 16개의 하위영역과 6개의 요인을 가진 총 85문항의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42문항이 긍정문항이었고 43문항이 부정문항으로, 부정문항의 경우 역산 처리하였다. 16개의 하위영역에는 ① 질문에 대한 반응, ② 놀이에 대한 허용적 태도, ③ 통제, ④ 놀이의 통제, ⑤ 아동에 대한 기대, ⑥ 학습에 대한 이해, ⑦ 학습에 대한 지원, ⑧ 사고의 격려, ⑨ 상상놀이 기회제공, ⑩ 놀이의 지원, ⑪ 성취동기의 육성, ⑫ 훈육의 타당성, ⑬ 정의적 지원, ⑭ 고정관념, ⑮ 교육에 대한 자신감, ⑯ 제한이 포함되었다. 6개의 요인은 「학습의 성취 격려」(⑥, ⑪), 「질문에 대한 반응」(①), 「창의성 발달의 촉진」(⑧, ⑫, ⑬, ⑭), 「놀이의 허용」(②, ④, ⑨, ⑩),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⑤, ⑦, ⑩), 「통제와 제한」(③, ⑯)으로 구성되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5-3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하는데, PAAT 개발자인 Strom(1995)은 각 영역별 평균 평점이 2.5점 이상이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Jeon, & Kim, 2005에 인용됨). 본 도구의 타당도는 연구자와 아동간호학 교수 2인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신뢰도 검증에서 신뢰계수가 Chung(198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0$ 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program Version 14.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범위 등을 포함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t-test, ANOVA와 Scheffe test를, 대상자와 아동의 특성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는 Kendall's tau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인 학령전기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6.92세 (최저 31세 ~ 최고 50세)로, 30세에서 39세까지가 69명(82.1%), 40세에서 50세까지가 15명(17.0%)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29.8%(25명) 천주교 10.7%(9명), 불교 9.5%(8명)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50.0%(42명)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이 82.1%(69명)로 고졸이하(17.9%, 15명)보다 많았고

<Table 1> Sociodemographic, child-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fathers (n=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f (%)
Father		
Age(year)	30 ~ 39	69 (82.1)
	40 ~ 50	15 (17.9)
Religion	Christian	25 (29.8)
	Catholic	9 (10.7)
	Buddhism	8 (9.5)
	No religion	42 (50.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d	15 (17.9)
	College graduated or higher	69 (82.1)
Economic status	Upper ~ Middle upper	12 (14.3)
	Middle	57 (67.8)
	Middle low ~ Low	15 (17.9)
Occupation	Business	13 (15.5)
	Services	15 (17.9)
	Office work	45 (53.6)
	Professional	11 (13.1)
Child		
Gender	Boy	35 (41.7)
	Girl	49 (58.3)
Age(month)	46 ~ 59	23 (27.4)
	above 60	61 (72.6)
Birth rank	First	52 (61.9)
	Second	29 (34.5)
	Third	3 (3.6)
Character	Particular	14 (16.7)
	Moderate	44 (52.3)
	Obedient	26 (31.0)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상'에서 '중상'으로 지각한 경우는 14.3%(12명), '중' 67.9%(57명), '중하'에서 '하'로 지각한 경우는 17.9%(15명)로 나타났다. 직업분포를 보면 '사무직'이 53.6%(4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직' 17.9%(15명), '영업직' 15.5%(13명), '전문직' 13.1%(11명)의 순이었다.

아동의 경우 여아가 49명으로 과반수(58.3%)를 차지하였고, 남아는 41.7%(3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5세(66개월)로 만 5세 미만이 27.4%(23명), 5세 이상이 72.6%(61명)이었다. 출생 순위에 있어서는 첫째인 경우가 61.9%(52명)로 가장 많았고, 둘째는 34.5%(29명), 셋째가 3.6%(3명)이었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아동의 성격은 '보통이다' 52.4%(44명), '순하다' 31.0%(26명), '까다롭다' 16.7%(1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

KPAAT 검사도구를 이용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점수는 전체 평균 평점이 2.80(±0.19)점 이었는데 이를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살펴볼 때 '학습에 대한 이해(3.08)', '성취동기의 육성(2.96)', '정의적 지원(2.96)', '질문에 대한 반응(2.93)', '훈육의 타당성(2.93)', '사과의 격려 (2.83)', '학습에 대한 지원(2.83)', '상상놀이 기회제공(2.81)', '놀이의 통제(2.81)', '교육에 대한 자신감(2.79)', '제한(2.76)', '아동에 대한 기대(2.75)', '놀이에 대한 허용적 태도(2.70)', '놀이의 지원(2.70)', '고정관념(2.62)', '통제(2.26)'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6개의 요인별로 볼 때, 「학업의 성취격려」가 가장 높은 점수인 3.02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질문에 대한 반응」 2.93점, 「창의성 발달의 촉진」 2.84점, 「놀이의 허용」 2.78점,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2.76점, 「통제와 제한」 2.5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Table 3>.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버지의 경우 직업의 종류였고 아동의 경우는 성격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에서의 차이를 t-test 또는 ANOVA와 Scheff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버지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t=1.28, p=0.20), 종교(F=0.67, p=0.57), 교육정도(t=-1.00, p=0.32), 그리고 경제수준(F=2.28, p=0.1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직업의 종류(F=3.14, p=0.03)에 따라서는 양육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직업이 전문적인 경우가 2.95(±0.29)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 2.81(±0.18), 서비스직 2.78(±0.18), 영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father's parenting

(n=84)

Subscale	Mean (SD)	Number of Items	Possible Range	Minimum	Maximum
Encouragement of academic accomplishment	3.02 (0.26)				
Understanding about learning	3.08 (0.31)	14	14 ~ 56	35	51
Encouragement of accomplishment motivation	2.96 (0.29)				
Response to question	2.93 (0.41)				
Response to question	2.93 (0.41)	4	4 ~ 16	6	16
Facilitation of creativity development	2.84 (0.22)				
Affectional support	2.96 (0.31)				
Propriety of child-rearing	2.93 (0.30)	17	17 ~ 68	41	59
Encouragement of thinking	2.83 (0.38)				
Fixed idea	2.62 (0.36)				
Permission of play	2.78 (0.24)				
Control of play	2.81 (0.38)				
Provision of imaginary play opportunities	2.81 (0.32)	23	23 ~ 92	53	83
Confidence about education	2.79 (0.31)				
Permissive attitude of play	2.70 (0.36)				
Evaluation and support about child	2.76 (0.24)				
Support of learning	2.83 (0.30)				
Expectation about child	2.75 (0.30)	18	18 ~ 72	40	69
Support of play	2.70 (0.29)				
Control and limitation	2.51 (0.24)				
limitation	2.76 (0.33)	9	9 ~ 36	17	29
Control	2.26 (0.34)				
KPAAT total	2.80 (0.19)	85	85 ~ 340	206	295

<Table 3> Mean scores of father's parenting items

Factors	Subscales and Items	Mean (SD)
Encouragement of academic accomplishment	6. Understanding about learning	
	60.* When I see my child playing, I think it is a waste of time.	3.46 (0.50)
	54. Children learn from playing with their friends like they learn from kindergarten or school.	3.12 (0.52)
	55.* When I play with my child whenever he/she wants, he can not learn more.	3.06 (0.61)
	38. Children see and learn more from their surroundings than from listening.	3.05 (0.60)
	64. I let my child play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 think playing is learning.	2.99 (0.55)
	5. I think there are many things for children to learn before they enter elementary school.	2.77 (0.65)
	11. Encouragement of accomplishment motivation	
	50. I always praise my child when he/she accomplishes something on his/her own.	3.37 (0.51)
	82. When my child does something or studying without my prompting, I praise him/her.	3.19 (0.55)
	42. I give my child various opportunities to make his/her own decisions.	3.12 (0.50)
	23. I always allow my child to explore his/her surroundings freely.	3.03 (0.61)
	33. I can talk to others about my child's strong and weak points accurately.	2.98 (0.58)
79. I encourage my child to finish the activities that he/she starts even if it is difficult.	2.95 (0.44)	
11. I actively encourage my child to try any new experience even if it involves some danger or anxiety.	2.74 (0.62)	
6.* I am sure my child will become the person that my family members want him/her to be.	2.31 (0.71)	
Response to question	1. Response to question	
	1.* When the child asks me something, I feel tired.	3.26 (0.62)
	29. I give the child time or ask for the child's thought rather than giving him/her the correct answer.	2.99 (0.50)
	48.* I feel upset when I cannot answer my child's questions.	2.82 (0.66)
	19.* It is upsetting when my child asks me something when I am busy.	2.67 (0.61)
Facilitation of creativity development	8. Encouragement of thinking	
	12. I advise my child to think more when he says he does not know something.	2.96 (0.57)
	34.* I talk to my child like other children when he tries to solve problems using inappropriate methods.	2.88 (0.57)
	61.* I answer accurately when my child asks a question that can be answered with 'yes' or 'no'.	2.63 (0.64)
	13. Affectional support	
	69.* I have more often felt distressed or troubled than feel joy during child rearing.	3.29 (0.63)

<Table 3> Mean scores of father's parenting items(continued)

Factors	Subscales and Items	Mean (SD)
Facilitation of creativity development	77. I often my hug my child and express my love to him/her.	3.26 (0.62)
	47.* I ignore my child when he/she boasts or holds his/her head high.	3.17 (0.49)
	72. When my child seems sad or troubled, I always ask him/her what is wrong and let him/her calm down.	2.99 (0.53)
	13.* I get irritated when my child feels fear and anxiety about a simple issue.	2.94 (0.52)
	17. I always know and respond accurately to what my child wants and feels.	2.62 (0.60)
	53. It is OK for my child keep secrets from me.	2.45 (0.70)
	14. Fixed idea	
	18. It is OK for a child to play with many types of toys regardless of his/her gender.	2.98 (0.60)
	68.* I immediately correct when my child he/she is not behaving like other children of the same gender.	2.76 (0.65)
	65.* I always tell my children to behave like his/her elder or younger sibling.	2.13 (0.43)
	16. Limitation	
	15.* If I play with my child more, his manners will become worse.	3.37 (0.49)
	81.* I think it is not good for a child to criticize something regardless of the reason.	2.87 (0.67)
	14.* I do not let my child talk about issues that are not appropriate topics for children.	2.55 (0.63)
20.* I think children should not chatter noisily when adults are talking.	2.24 (0.55)	
Permission of play	2. Permissive attitude of play	
	30. I think it is a problem if the child gets his/her clothes or body dirty during play.	3.07 (0.69)
	41. It is OK that toys are scattered about when my child is playing.	2.85 (0.74)
	2. It is OK that children make noise when they are playing.	2.71 (0.61)
	46.* I don't want my child to play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2.57 (0.66)
	35. When I am playing with my child, it is not a problem if he interrupts my speaking or behavior.	2.32 (0.66)
	4. Control of play	
	26.* I think my child must follow my control and guidance when he plays with me.	3.04 (0.65)
	36.* When my child gets angry at friends who play with him, I must make him stop playing.	2.88 (0.59)
	76.* I like children who read storybooks quietly rather than the children who run and scatter things about.	2.88 (0.67)
	59.* It is better for my child to play outdoors than indoors.	2.69 (0.64)
	25.* I punish children when they fight during play.	2.57 (0.66)
	9. Provision of imaginary play opportunities	
	24.* It seems silly when my child role plays (ex: mother, father) with toys.	3.50 (0.53)
16. It is good for children to play with many people and friends.	3.13 (0.60)	
7. Children often enjoy creating imaginary stories.	3.06 (0.65)	
31.* When playing with children, games with rules are better than play that involves pretending (ex: hospital play).	2.89 (0.60)	
67. I often collect pretty bottles or containers that can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for my child to play with.	2.42 (0.71)	
40. I do not mind if my child plays alone.	1.87 (0.60)	
Evaluation and support about child	15. Confidence about education	
	4. I want to play with my child.	3.35 (0.57)
	73. When I teach my child new things, I explain everything carefully.	3.08 (0.50)
	70.* I feel uneasy when I behave differently from other people.	2.82 (0.54)
	62.* I worry if my child is developmentally delayed when my child is doing not well.	2.69 (0.62)
	58.* I often refer to other people because I do not have confidence in my child rearing abilities.	2.62 (0.67)
	49. When I teach my child, I often use toys.	2.46 (0.55)
	5. Expectation about child	
	28.* When my child is not doing something well, I do it for him/her.	2.98 (0.56)
	45. For some problems regarding my child, I consult the child and make a decision with him/her.	2.94 (0.47)
	51. I usually tell to my child to make decisions by himself/herself.	2.68 (0.58)
	57.* I feel easy when I take care of my child's everything because he/she is too young.	2.40 (0.50)
	7. Support of learning	
	80. I do not disturb my child if he/she is concentrating on his/her play or on his/her own ideas.	3.11 (0.49)
32. I always guide my child with interest when he/she wants to learn new things.	2.90 (0.55)	
44.* I blame my child when he does not learn eagerly.	2.90 (0.61)	
85. When I buy toys for my child, I consider education after I consider our economic situation.	2.88 (0.68)	
63. I can teach my child appropriately at home.	2.86 (0.47)	
74. I observe my child's behavior attentively and guide him/her appropriately.	2.76 (0.51)	

<Table 3> Mean scores of father's parenting items(continued)

Factors	Subscales and Items	Mean (SD)
	10.* I do not notice when my child learns new things.	2.40 (0.56)
	10. Support of play	
	27. I think my child's behavior will improve if I play with him/her.	3.25 (0.56)
Evaluation and support about child	21. I can choose and buy toys that are appropriate for my child.	2.93 (0.51)
	22.* I do not know what to say to my child about his/her activities when he/she is playing.	2.93 (0.56)
	9.* It is usually taxing to play with my child.	2.90 (0.59)
	8.* I get irritated when my child insists that I look at what he/she is playing with.	2.87 (0.62)
	43.* It is difficult to pay attention to my child's activities when I play with him/her.	2.21 (0.52)
	37. I think it is not important to praise the child during play.	1.83 (0.76)
	3. Control	
	71.* I want my child check with me before he/she does anything alone.	2.89 (0.68)
	66.* Parents must know everything that their children do.	2.43 (0.59)
	3.* Rigid rules are necessary to rear a child properly.	2.15 (0.61)
	56.* I want my child to grow up well even if it is difficult.	1.95 (0.69)
Control and limitation	52.* Children must put toys in order before going to bed.	1.89 (0.49)
	12. Propriety of discipline	
	39.* Because children have short memory spans, when I am scolding my child, I do not need to explain the reason that I am scolding him/her.	3.32 (0.58)
	84. I think most wrong behaviors originate from the parents.	2.95 (0.66)
	78.* When my child makes a mistake, it is effective to scold him rather all together at once than each time.	2.87 (0.72)
	83. I intentionally do not give my child everything that he/she wants.	2.60 (0.62)

* Negative item

<Table 4> Differences of father's parent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t / F	p-value	Scheffe
Father					
Age(year)	30 ~ 39	2.82 (0.20)	1.28	0.20	
	40 ~ 50	2.75 (0.18)			
Religion	Christian	2.85 (0.20)	0.67	0.57	
	Catholic	2.82 (0.22)			
	Buddhism	2.74 (0.22)			
	No religion	2.80 (0.19)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d	2.76 (0.17)	1.00	0.32	
	College graduated or higher	2.82 (0.20)			
Economic status	Upper~Middle upper	2.84 (0.26)	2.28	0.11	
	Middle	2.83 (0.18)			
	Middle low~Low	2.71 (0.17)			
Occupation	Business ^a	2.72 (0.12)	3.14	0.03	a<d
	Services ^b	2.78 (0.18)			
	Office work ^c	2.81 (0.18)			
	Professional ^d	2.95 (0.29)			
Child					
Gender	Boy	2.79 (0.17)	0.71	0.48	
	Girl	2.82 (0.21)			
Age(month)	46 ~ 60	2.83 (0.17)	0.75	0.46	
	61 ~ 87	2.80 (0.19)			
Birth rank	First	2.84 (0.21)	1.67	0.20	
	Second	2.76 (0.16)			
	Third	2.84 (0.04)			
Only child	Yes	2.85 (0.21)	1.02	0.31	
	No	2.80 (0.19)			
Character	Particular ^a	2.76 (0.14)	4.87	0.01	b<c
	Moderate ^b	2.77 (0.17)			
	Obedient ^c	2.90 (0.24)			

업직 2.72(±0.1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직인 경우가 영업직인 경우보다 양육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t=-0.71, p=0.48$), 연령($t=0.75, p=0.46$), 출생순위($F=1.67, p=0.20$)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성격($F=4.87,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아동의 성격이 '순하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2.90(±0.24)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2.77(±0.17), '까다롭다' 2.76(±0.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순하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지각하는 경우보다 양육태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Table 4>.

아버지와 아동의 특성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아버지의 특성 및 아동의 특성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과 양육태도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태도 점수가 높아 30대 아버지의 양육태도 점수가 40대의 아버지보다 더 높았다($r=-0.16, p<0.04$). 또한 아동의 성격과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아동의 성격이 순하다고 지각할수록 양육태도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r=0.21, p<0.02$)<Table 5>.

<Table 5> Correlation among characteristics of father and child,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Parenting
Father	Age	-0.16*
	Religion	-0.09
	Education	0.07
	Economy	-0.14
	Occupation	0.13
Child	Gender	0.04
	Age	-0.00
	Birth rank	-0.09
	Character	0.21*

* $p<0.05$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평균 평점 2.80(±0.19)점으로 원 도구 개발자인 Strom(1995)이 제시한 기준점인 2.50점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16개의 하부영역과 6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때는 16개의 하부영역 중 '통제' 만이 2.26점으로 2.50점미만으로 나타났으며 6개의 요인은 모두 2.5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부터 막연하게 아버지에게는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크게 부과되지 않아 별다른 관심이 없고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도 양육태도에 있어서 그동안 잘 연구되지 않았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양육태도를 6개의 요인으로 크게 나누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6개의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는 「학업의 성취격려」로 나타났다. KPAAT를 개발한 Chung(1987)은 이 요인을 아동의 학습을 이해하고 성취동기의 육성을 도모하는 양육태도로 보았고, 아동발달과 학습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적절한 지원이 아동발달에 있어 필수 사항이며, 교사로서의 역할 지각을 측정하기위한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아버지들은 학령전기 아동의 놀이를 학습으로 여기고 놀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고 지각하였으며 아동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칭찬을 하고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학습을 격려했다. 반면에 “우리 아이는 반드시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항목은 점수가 가장 낮아(2.31±0.71) 부모가 아동의 장래를 좌우하기 보다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성취동기와 그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Hwang(1992)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밀감을 주며 일상생활이나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아버지의 아동은 성취동기가 높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업 성취동기를 긍정적으로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동양육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영역은 학업임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반응」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인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학령전기의 아버지들은 아동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물음에 대해 다시 생각할 여지를 주거나 아동의 생각을 되묻는 방식으로 호기심을 지식탐구로 연결시킴으로써 생각을 자극하고 정보를 얻도록 도와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아버지들은 아동의 질문에 대해 피상적이고 무관심하리라고 예상했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창의성 발달 촉진」으로 Chung(1987)은 이를 아동의 사고를 격려하고 정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훈육하는 부모의 태도로 설명하고 있다. Jeon과 Kim(2005)은 창의성은 사회에의 성공적인 적응과 자기발전의 기동력이 되며 아동기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이므로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였고, Chung(1987)은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추리하고 질

문하고 실험하는 것을 격려하며 고정된 성역할에서 개방될 때 창의성이 육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인 아버지들이 성차별 없이 애정으로 아동과 즐겁게 많이 놀아주며, 일정한 틀로 아동의 행동을 정형화시킴으로써 창의성을 억제하는 내용의 “아이들이 형답게 또는 아우답게 행동하라고 늘 일러준다.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2.13±0.55)를 준 것을 통해서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고 지원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창의적 성격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각, 판단 및 행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생각할 때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놀이의 허용」 요인은 아동의 놀이에 대해 고정관념 없이 허용하는 부모의 태도를 말한다. 놀이는 학령전기 아동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로, 아동은 이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부모가 이야기 꾸미기와 역할놀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며 놀이를 학습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Chung, 1987). Farver, Kim과 Lee-Shin(2000)은 양육태도와 놀이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아동의 놀이행동과 연관되며, 놀이를 교육적이고 인지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여기는 어머니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고 성인을 모방할 뿐이라고 여기는 어머니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상놀이를 격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Jeon과 Kim(2005)도 놀이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놀이에 대한 부모의 견해는 곧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놀이에 대해 부모와 아동이 느끼는 방식의 차이는 대부분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ang과 Cho(2006)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 경우 놀이의 하위영역중 하나인 인지적 자발성이 감소하여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달이 저해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기꺼이 함께 놀며, 장난감을 이용한 가상놀이를 매우 당연시 했다고 아동이 상상 속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의 성취격려」 요인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아동의 놀이를 학습으로 인식하고 놀이시간이 즐거움을 느끼고 상상력과 감각을 발달시키는 기회라고 여기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섯 번째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요인은 아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하며 돕는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새 장난감을 구입하여 아동과 같이 놀아주거나 놀이에 집중할 때 아동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관심을 표현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등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지원과 평가에서 아버지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정도보다 높게 아동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와 제한」 요인은 아동행동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나타내는 양육태도이다. 아동은 어느 정도의 통제감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때 건전한 자아개념을 가질 수 없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성과 양심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표현이 불가능하다면 아동은 종종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Chung, 1987).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아동이 잘못했을 경우 그 때마다 벌을 주기 전에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나 잘못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아개념은 한 개인의 자기 지각을 의미하며, 학업성취나 인간관계, 사회화 과정, 그리고 동기유발의 잠재적인 유발요인으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지각되므로(Lee & Koh, 2003) 지나치게 아동이 하기 힘든 일을 하도록 시키거나, 완벽한 정리정돈을 원한다면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부모나 타인과의 관계형성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통제와 제한은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 아동들이 논리적인 일련의 가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결정 후 결과로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종종 필요하다. Robinson(1993)의 연구에서는(Jeon & Kim, 2005에 인용됨) 부모가 지나친 통제를 피하고, 너무 조 직적인 놀이 활동을 제한할 때는 아동은 스스로 잘못을 교정할 수 있고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학령전기 아버지들이 지각하는 교사로서의 아버지 역할과 관련된 양육태도 정도는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생각했던 바와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아버지의 경우, 직업의 종류이었으며, 아동의 경우는 성격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양육태도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영업직보다는 전문직을 가진 아버지의 양육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영업직의 특성상 전문직보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육아 및 놀이 활동에의 참여도를 연구한 Kang과 Horn(2007)이 아버지의 참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야근과 늦은 퇴근 시간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Jeon과 Kim(2005)은 어머니의 직업이 서비스직일 경우 전문직보다 자녀양육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높았고, 자녀의 교수·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또한 아버지의 사회계층(학력, 직업, 소득수준을 고려한 계층 분석 시)이 높을수록 유아 중심적 교육의 자녀양육태도를 나타냈다는 Oh와 Chu(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아동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아동의 성격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동의 성격이 '순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자녀에게 보다 통제를 많이 하며 의사결정의 기회를 적게 주며 자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한 Jeon과 Kim(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아동관련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버지의 연령과 부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아동의 성격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의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아동의 성격이 순할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직업 종류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성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거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별 관심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막연하게 추측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본 연구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조사,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바와는 달리 아동양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적 의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실무측면에서 볼 때 아동양육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결혼 후의 신혼부부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아직 자신들의 실제적인 일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부모역할을 계획해야 하는 성인기 초기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아동의 특성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보건의소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유용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간호이론과 연구측면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 중심이 아닌, 아버지도 양육자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인 긍정적 양육태도로 미루어 알 수 있으므로 부모·자녀가 중심이 되는 가족중심의 간

호리는 이론적 접근 및 양육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는 애정·적대와 자율·통제의 네 가지 영역이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모의 역할 지각에 대해 알아보고자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횡단적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84명이었으며 2004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 한 곳과 어린이집 한 곳 등 두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는 Strom과 Johnson(1974)이 개발한 PAAT(Parent As A Teacher) 검사 도구를 기본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도구(Korean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KPAA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2.80(±0.19)점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6개 요인별 점수는 「학업의 성취격려」 3.02(±0.26)점, 「질문에 대한 반응」 2.93(±0.41)점, 「창의성 발달의 촉진」 2.84(±0.22)점, 「놀이의 허용」 2.78(±0.24)점,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2.76(±0.24)점, 「통제와 제한」 2.51(±0.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특성 중 직업의 종류($F=3.14, p=0.03$)에서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아동 특성 중 성격($F=4.87, p=0.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아버지의 특성 및 아동의 특성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아버지의 연령과 양육태도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0.16, p=0.04$), 아동의 성격과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21, p=0.02$)

본 연구의 제한점과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더 많은 대상자 및 지역을 포괄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태도의 차이, 영향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 지각을 돕고 문제 확인 및 지도방향을 제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H.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Bang, K. (2004). Childrearing attitude and burden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and temperament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2), 217-224.
- Bornstein, M. H. (2005). Parenting matters, *Inf. Child Dev*, 14, 311-314.
- Chung, K. S. (1987).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n parent as a teacher test. *Korean J Early Childhood Educ*, 7, 41-61.
- Farver, J. A. M., Kim, Y. K., & Lee-Shin, Y. (2000). Within cultural differences: Examin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Kore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preschoolers' social pretend play. *J Cross-Cultural Psychol*, 31, 583-602.
- Ham, I. (1997). Rediscovery of modern father's image. *Family & Culture*, 9(2), 1-24.
- Hong, K., Ahn, H., & Kim, H. (2004). Influence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lief in corporal punishment on physical abuse of children in Korea.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4), 479-487.
- Hwang, J. (199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of child and the child 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 of fa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Jang, Y., & Cho, 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J Early Child Educ*, 10(1), 251-268.
- Jeon, G., & Kim, S. (2005). The effects of marital parenting stress with preschool children on parenting attitudes. *Int J Human Ecol*, 43(1), 35-51.
- Kang, J., & Horn, E. (2007). Understanding urban Korean fathers' participation in the childcare and play activities of thei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 Early Childhood Special Educ*, 7(1), 225-246.
- Kim, K.,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earing behaviors, playfulness,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Kim, S. (2002). A concept analysis of the caretaking behavior for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8(4), 414-421.
- Lee, H., Lee, S., Kim, M., Kim, Y., & Park, N. (2004). A study of parental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3), 262-271.
- Lee, H., Yang, Y., Gu, M., & Eun, Y. (1997). Introduction of nursing research, Seoul: Hyunmoonsa.
- Lee, K. H., & Koh, J. Y.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chool-age children. *J Int Assoc gifted & Talented*, 2(2), 29-47.
- Lee, M. (2004). A study of the fathering attitude on young children's language and social 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e, S.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conflict scale - for mothers whose over toddler ~below preschool child -.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8(3), 291-301.
- Oh, H., & Chu, K. (2004). An inter-gener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opinions of child-rearing practices according to the social economic status of kindergarteners' parents, *J Child Educ*, 13(2), 165-183.
- Pallant, J. (2005). SPSS survival manual 2nd ed. Sydney: Ligare Pty Ltd.
- Park, H. M. (1993). A study on parental stress based on the parenting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olit, D. F., & Hungler, B. P. (1999).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6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 Sang, H. J. (1993). A study on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Ewha Educ Res*, 4, 5-15.
- Strom, R., & Johnson, A. (1974). The parent as a teacher. *Educ*, 95(1), 40-43.
- Strom, R. D. (1995).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 Yang, S., Lee, H. J., Han, Y., Park, H., Kim, Y. H., & Kang, I. (2005). Healthy sexuality, healthy family. Seoul: Jungmunkag
- Yun, Y.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perception of child rearing and children's gender understanding, gender role knowledge, gender role prefer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